

화목한 사회주의 대가정에 꽂펴나는 아름다운 생활

인간 사랑의

화원에 넘치는 미풍

독자들이

보내온 편

지를 보며

전국 각지에서 하루에도 수십 풀의 편지가 올 때가 있다. 베일 이다실이 받아보는 편지들이고 전하는 내용 또한 어긋비슷하다. 하지만 그 편지들을 볼 때마다 가슴 용을 엿어드는 생각이 있다.

우리 사는 이 사회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어찌하여 세상사람들은 이 편지로 어제도 오늘도 이 명에서는 『세상에 브림없이라』의 노래가 그토록 높이 울리고 있는가.

위대한 평도 차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사회에서는 전체 민족이 혁명의 의리와 통지에 기초하여 하나로 굽게 통쳐있으며 하나님은 전체를 위하여 하는 천체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원칙에 따라 서로하고 이어서 함께 투쟁해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아침에도 우리는 첫 일과로 수많은 편지들을 펼쳐보았다.

동안의 고고작은 일을 모두 들봐야 할 사무장이 술한 진령로령, 영예군인, 교원, 연구사, 후방기록, 철길경비대에 보르는 것이 있을까. 세심히 관심해준다는 사동구역 두루 1동 진령로령의 편지, 길집과 봄에는 어린 이를 집에까지 데려다온 기록한 소년단원의 이야기를 전하는 등

대천구역 동신 3동에 사는 한녀인이 보내온 편지, 아침저녁 이동봉사대를 잘 운영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고 있는 라선시 라진지구 라진봉사관리소 소장 이동일동무와 협연원들의 소생에 담긴 편지…

참으로 감동깊은 사연을 담고 있는 편지들 가운데 름달리 부페 두통한 편지가 있었다.

그것을 보면 사람들은 중구역 서문동에 살고 있는 박주성영에 군인의 어머니였다.

수면간의 가지지 추억을 담은 편지의 편지는 훌려간 새월을 우리 눈앞에 그대로 절쳐보이기도 바로 방불했다.

내용은 이러했다.

박주성영에 군인의 집에는 두상의 기념사진이 있다. 박주성 영에 군인과 그의 어머니 심정숙녀성이 백두산영통성년발전소 전장에서 정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무를 모시고 함께 적은 영광의 기념사진이었다.

명예대원이었던 그들은 근 1년 동안이나 집을 떠나 백두산 기슭에서 돌격대 생활을 했다고 한다.

돌격대원들은 누구나가 사랑하는 박주성동무는 몇몇 전군사원 험수험 등 철학자의 일로 영에 군인이 되었다.

처음에는 25살 한창나이에 친상에 매인 그에게 있어서 희망과 포부만 없었다. 그연에 어느 날 그가 입원해있는 병원에 한녀인

이 찾아왔다. 박주성동무의 옆집에 누워있는 청진구역에 사는 한영예군인의 건강과 생활을 친형숙녀를 도와주는 중구역 서창동에 사는 최춘우동무였다. 그날 박주성동무의 소생과 경희회를 위해 200여 일의 치료전 루를 벌린 병원의료집단과 수많은 사람들의 전정에 대해 들으면서 최춘우동무는 마음속으로 우리 사회주의가 얼마나 좋은 일을 다시금 심장으로 느꼈다고 한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최춘우동 무에 가정은 박주성영에 군인과 협연의 정을 잊게 되었고 그길에 최춘우동무와 일터에서 함께 일하면 림령옥동무와 그의 딸도 나서게 되었다.

불과 몇 달만에 돌격대원들의 식생활을 들보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봄밖에 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일하면서 림령옥동무와 그의 딸도 나서게 되었다.

영예군인 모자는 매일이다 실이 자기들을 둘러싸고 생활을 보살펴준 고마운 너인들을 잊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지낸 인간에게 지극히 서서한이 아니었다.

몇몇 어느 날 박주성영에 군인의 집에는 많은 지원원들과 준비해 가지고 두녀인과 자식들까지 찾아왔다.

『주성동무, 우리 함께 백두 산에 가자요.』

뜻밖의 이 말에 박주성동무는 자못 놀랐다. 하지만 명사시설 철원 청진동 무를 위한 봄부터 청진동 무를 걸고 살았던 한 영에

여군인의 가슴을 울리었다. 이렇게 되어 최춘우, 림령옥동무가 깃든 많은 지원자를 안고 박주성동무와 그의 어머니는 백두산영통성년발전소 전장을 찾으러 떠났다.

그러면서 그는 길길성종합대학에 다니는 최춘우녀성의 아들 김진의 학생과 금성제 2종학교에 다니는 림령옥녀성의 딸 강영숙이 이제는 어머니들의 뒤를 이어 자기들의 가정을 찾고 있다

며 정평한 영예군인을 친형숙녀에게 주는 수많은 사람들의 정성을 더해마다 사회주의의 계도에 대한 고마움으로 가슴이 젖어든다고 쳤다.

하나의 물방울은 온 우주가 비단되는 말이 있다.

바로 이런 사랑과 정으로 하여 예인간들의 삶이 그렇듯 아름답고 우리 사회가 그렇듯 활기애 넘쳐나는 것 아니라.

사회와 청년을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정을 다하고 사랑을 바치며 지어 생명까지도 서슴없이 내대는 것을 더없이 미력으로 여기는 인민, 그들이 사는 땅에서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는 끝이 끊여 날것이다.

우리의 독자들속에 더없이 정 많고 청춘한 길동무로 간직된 『독자의 편지』라는 고정란은 더 많은 미력의 주인공들을 기다렸다.

『집밖에 정히 모신 기념 사진들을 바라볼 때마다 최춘우가 오는 빛을

우, 림령옥동무에 대한 고마움이 더욱 커진다. 그들의 사실 없는 전정을 떠나 어찌 우리 가정의 오늘을 생각할수 있겠습니까. 조국을 위해, 사회를 위해 좋은 일을 더 많이 찾아야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길길성종합대학에 다니는 최춘우녀성의 아들 김진의 학생과 금성제 2종학교에 다니는 림령옥녀성의 딸 강영숙이 이제는 어머니들의 뒤를

이어 자기들의 가정을 찾고 있다

며 정평한 영예군인을 친형숙녀에게 주는 수많은 사람들의 정성을 더해마다 사회주의의 계도에 대한 고마움으로 가슴이 젖어든다고 쳤다.

하나의 물방울은 온 우주가

반원들을 이끌어 주고있다. 그는 남들보다 더 많이 일을 하고 땅보를 비롯한 출판보도를 보면서 자료방취를 하느라 삶을 가지고 병원을 찾고 있다.

『온 나라에 서로 둘고 이끄는 고상하고 아름다운 미풍이 차남지에게 하여 우리 사회를 회복하고 단합된 일상의 대가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 4월초 선천군군교장에서는 혁신자족 하도임이 있었다. 무대에 나선 혁신자들에게 꽂다발이 안겨지고 장내에

작업반원들을 위하는 그의 마음은 또 얼마나 뜨거운지 모른다. 그는 생간장을 벌어질 때 림에서 심의 마한한 후방 풀을 가지고 차운이나 작업반원들을 위해 뜨거운 마음을 바치었다.

심하게 앓을 때 구비에 맞는 음식들을 해 가지고 집에 자주 찾아와 신심을 복돋아주면 전금 순동무의 모습을 정밀히 알 수 없다고 하는 한 종업원의 말은

그를 작업반원들은 우리 당시포워워한, 우리 선동원이파고 사랑과 존경을 담아 부르고 있다.

조설옹동무가 작업반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여주기 위해 기울인 혁신의 봄과 땅이 얼마나 모른다.

신입공동들은 하루빨리 자기 봄을 달당하 하도록 하기 위해 바친 그의 사심없는 노력에 의해

어 많은 봄동들이 짧은 기간에 기능동으로 자리났다.

혁신자축하도임이 있는 위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제작기능수준을 높여주기 위해 바친 그의 사심없는 노력에 의해

마음은 오는 봄에서부터 우리 나온 전진이었다.

본사기자 김진욱

가져다주군 하였고 혁명적인 도서들도 보내주며 지구학동무가 학습의 꽃을 번화가도록 했

풀의 싱정으로 돌보아주었다.

언제인가 영예군인의 품지 않 은적이 있었다.

그 소식을 듣고 깊은 반 쇠함 동무가 한발을 떠밀려왔다.

병자로 풀어놓았던 풀은 키친 풀이었다.

언제인가 한영숙동무는 같은 작업반의 일꾼들이 밟아 되었다.

그들은 짐단과 풍지들을 보며 뜨거운 봄을 맞이 했고 그들이 봄을 맞이하는 그의 사심없는 노력에 의해

어 많은 봄동들이 짧은 기간에 기능동으로 자리났다.

『영예군인동지가 물이 건강

하여 혁명의 꽃을 번화가도록 했을수만 있다면 저는 저 바랄

것이 없습니다.』

바로 이런 마음을 암고 최향동무는 오늘도 영예군인을 위한 길을 이어가고있다.

본사기자 김진욱

동지적의 희심을 암고 20여 년

학원 활기찬 소로동자 최향동무

제나 신심과 학관에 넘쳐 생활

하도록 청탁도자도 했고 하루마다 그의 집에서 살피실

이 하면서 집도 도와주고 영예군인을 위한 좋은 일도 스스

로 찾아하였다.

어느 새봄은 흥미 최향동무는 남흥청년회 학원 활기찬 소설에 서 일하는 제대 군인동지로 성장

하는 남동동에서 일하는 청년을 봄동과 함께 아름다워졌다.

그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돌아올 때면 어김없이 영예군인의 집에 들어노래 불러주고 세바퀴도 밀어주며 영예군인이

인

것

행

행

행

행

행

행

행

행

행

행

행

행

행

행

행

행

행

행

행

행

행

행

행

행

행

행

행

행

행

행

행

행

행

행

행

행

행

행

행

행

행

행

행

행

행

행

행

행

행

행

행

행

행

행

행

행

행

행

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6돐 경축행사

제 중 조 선 인 총련 합회에 서

진 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6돐에 즈음하여 제중조선인총련합회는 15일 중국 경립육 운종학교에서 경축행사들을 친행하였다.

행사장 광장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영광사상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는 구호로 드리운 대형기구들이 떠 있었다.

또한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자를 모신 대형프랑카드가 행사장에 걸쳐져 있었다.

차상보 쟁조선인총련합회 부의장을 비롯한 충원합회 입군들과 산하지구협회 및 지부대표들, 제중조선경제인련합회와 제중조선인청년협회 청년들, 김일성에 살고 있는 제중동포들과 심양주에 우리 나라와 총령사관 입군들, 북부 3성에서 사업하고 있는 우리 민족들이 경축행사에 참가하였다.

또한 중국 김일성인민정부 외사관공실 부주임, 김립육운종학교 교장, 당시기사를 비롯한 중국의 인사들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김립육운종학교

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꽂아바구니를 정성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6돐 경축 제중조선인총련합회 광장보교대회가 진행되었다.

대회는 《김일성장군의 노래》 함창으로 시작되었다.

차상보 부의장이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조국의 천만군민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역사적인 중국땅에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더욱 빛내이기 위한 충정의 전투에서 멀리 기적과 혁신의 불파리를 세워 일으켜나가고 있는 적격적인 시기에 유서깊은 김일성대원수님의 탄생 106돐을 민족화폐의 경상스러운 명절로 성

대회를 열고자 헌법과 사회주의 혁명을 승리로 이끄시며 우리 조국을 자주, 자립, 자위로 운영하는 뜻이다.

대회는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 노래 함창으로 끝난다.

그는 새 세대 정치사에 이름을 남긴 정치가들과 위인들이 적지 않지만 우리 수령님께 빛나고 있는 오랜 새월 특성적인 사상과 탐월한 행동,

고대 한 역사으로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얻으며 20세기를 반데자주위업, 사회주의 위업 승리의 세계기로

미래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영생을 칭송하고 있으며 아버지수령님을 살고 고인을 끊어나가고 있는 새 세대 정치인 총련합회와 체제 재통포들의 탐월 없는 경모의 정을 담아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혁명가는 일세가 없었다고 칭송하였다.

오늘 우리 민족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그대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향해 경축행사를 진행하였다.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최고령도자

김정은